

중부청신 보타나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국로비해양수산부!
		배포 일시	2019. 8. 9.(금)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해양영토과	담당 자	• 과장 김민성, 사무관 정연주 • ☎ (044)200-5355	
보도일시		2019년 8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1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여름철에는 복 많은 돼지섬, '돌섬'으로 떠나보자!

- 해수부, 8월의 무인도서로 창원 '돌섬'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해를 맞아 8월의 무인도서로 돼지의 모습을 닮은 '돌섬'을 선정하였다.

돌섬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위치해 있으며, 육지에서 약 0.7km 떨어져 있어 유람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총면적 97,156㎡, 해발 52m, 둘레 1.5km로, 40분이면 섬 한 바퀴를 돌아볼 수 있는 아담한 섬이다.

돌섬의 '돌'은 '돼지'의 옛말로, 섬 모양이 돼지가 누워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예로부터 돼지는 '돼지 돈(豚)'자와 '돈(화폐)'의 음이 같아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로, 돼지꿈은 길몽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황금돼지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재물운이 좋다는 말도 있다.

돌섬 입구에는 커다란 황금돼지상이 놓여있는데, 이 돼지를 품에 안으면 부자가 되고 코를 만지면 복이 두 배가 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의 사진 명소가 되었다.

이 외에도, 돌섬에는 다양한 새들을 만나고 먹이체험 등을 해볼 수 있는 조류원, 갯벌 체험장, 요트와 카약 등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교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김민성 해양수산부 해양영토평과장은 “돌섬은 예전부터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었으나, 무인도서인 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인도서를 소개하여 무인도서가 지닌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월 ‘이달의 무인도서’를 선정하여 소개해 왔으며, 올해 8월부터 다시 ‘이달의 무인도서’를 선정하게 되었다.

2019년 8월, 이달의 무인도서

바다나온 해양수산부 | 영토의 시작, 생태의 집단의 보고, 무인도서

장원 돌섬

황금돼지해,
여름휴가는 해상유원지 돼지섬에서!

황금돼지해, 뽕 드라는 돌섬으로 오세요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돌섬은 육지와 거리가 약 0.7km 떨어져 있어 유람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약 10분이면 도착해 접근성이 좋다. 면적은 97,166㎡, 해발 52m, 해안선은 1.5km로 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 데 약 40분이 소요되는 아름다운 섬이다. 이 섬에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다음과 같다.

한 옛날, 가락국 왕의 총애를 받은 마희가 어느 날 갑자기 돌로(마산의 옛 명칭) 앞바다 섬에서 재회하자 신하들은 그에게 황궁을 재촉 하였다. 하지만 마희는 금돼지로 인해 무학산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 후 금돼지는 행수로 인해 박살을 해였고, 군방들이 금돼지를 포획하려고 하자, 한 줄기 빛이 되어 섬으로 사라져버렸다. 금돼지가 사라진 섬은 돼지가 누운 모습으로 인해 그때부터 돼지의 옛말인 '뽕' 섬으로 불리게 되었다.

최초의 해상유원지, 최적의 여름휴가지

돌섬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상유원지라는 타이틀이 있다. 아름다운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파도 소리 들레길', 마음을 울리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사가 있는 숲속 산책길', 2012년 10월 친환경 소재로 자연과 함께하는 유원지를 표방한 창원 조각 비엔날레에 출품된 20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작품 감상길'까지 세 가지 들레길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동물을 보고, 먹이를 줄 수 있는 조류원과 낚시, 조개, 굴 등을 채취할 수 있는 갯벌 체험장, 출렁다리,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핀 장미를 볼 수 있는 바다정미원과 요트, 카약 등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돌섬은 옛 마산시가 선정한 마산 9경(景)에 속하였으며 지난 1월 한국관광공사의 가을 만한 곳으로 채택되었으며, 지난 8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여름휴가 즐기기 좋은 섬 9선에도 선정되었다.

돌섬가는길

돌섬유람선터미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56
출항시간 :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30분 간격 운행(일요일 및 월요일 휴무) 당일 돌섬 개방 시간 2시간 연장 : 오후 6시~8시
요금 : 성인 5,000원, 소인 5,000원
문의 : <http://mof.go.kr>, 055-245-4451

돌섬의 상징 황금돼지상

해안을 따라 걷는 파도 소리길

<http://blog.naver.com/koreamof> <http://www.mof.go.kr> www.facebook.com/pg/mofkor/photos

참고 2

돌섬 위치

